

아시아인 첫 LPGA '명예의 전당' 입성 박세리 기자회견

## "내 큰 꿈 이뤄진 날 ... 가장 기쁘다"

해외 언론도 "한국 골프 선구자" 칭찬

'한국 골프의 선구자' 박세리(30·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박세리는 8일(이하 한국시간)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스 볼록 골프코스(파72·6천596야드)에서 열린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쳐 드디어 명예의 전당 입성 자격을 모두 챌웠다.

2004년 5월 미켈롭울트라 오픈에서 우승,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27점을 모두 확보한 박세리는 또 다른 조건인 10시즌 현역 활동을 이번 대회로 채우면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다.

이로써 한국 골프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구자라는 평을 들어온 박세리는 명예의 전당에도 맨 먼저 이름을 올리며 '선구자' 이름값을 해냈다. 외신들도 한국 골프의 선구자이며 극찬했다.

이날 팻 허스트(미국), 훌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와 한 조를 이룬 박세리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소개를 받으며 갤러리들의 박수 속에 7일 밤 10시16분 티오프했다.

마지막 18번홀을 파로 마무리한 박세리는 캐디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고 1라운드를 마친 뒤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남은 목표는 그랜드 슬램과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쉼없는 전진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세리가 8일 LPGA 맥도널드 챔피언십 1라운드 후 기자회견장에서 '명예의 전당' 입회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여후배들 "언니 축하해"

벳시 킹·데니얼 회원도 참석

8일 LPGA 명예의 전당 가입이 확정된 박세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많은 한국 선수들이 기자 회견장을 찾았다.

이지영, 김주연, 이미나, 유선영, 양영아, 이정연 등 한국 선수들은 미리 기자 회견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세리가 기자 회견장에 입장하자마자 폭죽을 터뜨리며 박세리의 '대업 원수'를 축하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 회견이 끝난 뒤 축하 케이크를 갖고 나가 박세리의 얼굴에 케이크를 묻히는 등 장난스런 행동으로 기자 회견장 분위기를 띠웠다. 또 회견장에는 명예의 전당 회원인 벳시 킹, 베스 대니얼이 참석했다.

킹은 1995년에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으며 통산 승수는 34승이고 1999년 가입 멤버인 대니얼은 통산 33승을 기록한 베테랑이다.

2005년에 가입한 카리 웹과 2003년에 이름을 올린 안니카 소렌스탐 등 또 다른 명예의 전당 멤버들은 경기 일정 또는 개인 사정 상 참가하지 않았다.

## 김주연·안젤라 박 공동선두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1R

박세리 공동 47위

200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가운데 가장 우승 상금이 많은 최고 권위의 US여자오픈을 제패한 '메이저 퀸' 김주연(26)이 메이저대회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이 을렸다.

김주연은 8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스의 볼록골프장(파72·6천596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선두에 올랐다. 김주연은 페어웨이 안착률 78.6%, 그린 적중률 77.8%, 그리고 퍼팅 수 28개 등 준수한 기록으로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온 교포 안젤라 박(19)도 버디 6개, 보기 1개를 뽑아 김주연과 함께 공동선두를 달렸다.

10위 이내 진입은 못했지만 2언더파 70타

를 쳐 공동 13위에 자리 잡은 김미현(30·KTF), 이미나(26·KTF)와 20위(1언더파 71타) 그룹에 오른 이선화(21·CJ), 이정연(28), 안시현(23), 김주미(23·하이트), 이지영(22·하이마트), 민나은(19) 등도 상위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1라운드를 마치면서 명예의 전당 입회를 확정지은 박세리는 버디없이 보기 1개의 단출한 스코어카드를 적어내며 공동 47위(1오버 73타)로 역사적인 리운드를 마쳤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2언더파 70타를 떼려내며 공동 13위에 올라 부상 후유증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강진 남북축구 꿈나무 대결

### 한국 선발팀 3-2 승

남북 축구 꿈나무들의 맞대결에서 남측이 이겼다. 한국 중학교축구연맹 선발팀은 8일 강진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북한 4.25유소년팀과 친선경기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3-2로 승리했다.

한국 선발팀은 6일 1차 평가전 3-0 승리에 이어 4.25유소년팀과 두 차례 친선경기를 모두 이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주연의 세컨 샷

김주연이 8일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스의 볼록 골프 코스에서 벌어진 2007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1라운드 8번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특급 에이스' 즐비 '투고타저' 예상

### 무등기 야구 전력분석

#### (하) 서울·경기·인천·충청·강원권

제 14회 무등기 야구대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지역에서 모두 13개 팀이 참가한다. '특급 에이스' 이형종이 버티고 있는 서울고가 우승 후보다.

#### ▲서울·경기(8팀)

서울고는 올해 대통령배 결승에서 광주제일고에 아쉽게 패한 서울 강호다. 눈물의 후루소로 유명세를 탄 우완 정통파 이형종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가 강점이다.

이형종은 148km에 이르는 직구와 슬라이더, 날카로운 견제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 이형종 버틴 서울고 상위권

고 있다. 타선에선 지역에선 3할타를 휘두른 최준건과 이락일, 박건우, 안성우 등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 라이벌' 장충고는 최고 구속 146km를 뿐만 아니라 고고 강속구 투수 최원재와 박민석이 마운드의 '쌍두마차'다.

여기엔 변화구가 예리한 사이드암 강지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타선에선 공·수·주를 두루 갖춘 김경모, 김경한 형제와 파워배팅의 달인 김현우가 둔든하다.

올 대통령배 4강에 입장한 종양고는 좌완 민성기와 언더핸드 노진용의 튼튼한 마운드가 큰 힘이지만, 약한 방망이가 문제다.

2006년 미추홀구 우승을 시작으로 성장세로 접어든 충암고는 홍상삼, 최호성, 최경환 등 3학년으로 구성된 마운드가 안

#### ▲인천·충청·강원(5팀)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강호' 제물포고는 2005년 미추홀기 4강, 2006년 화랑대기 4강 등 매년 꾸준한 성적을 내는 팀이다. 지역 예선서 5할타를 선보인 홍성원과 4할타 박용진, 3할타 김희석, 남태혁 등이 주축이 된 막강 타선을 앞세워 우승 기회를 넘보겠다는 각오다.

메이저리거 박찬호와 두산의 김경문 감독 등을 배출한 충남의 야구 명문인 공주고는 지역 예선서 5할타를 뽑낸 주장 이남용과 3할타를 터트린 포수 장의호,

#### 춘천고·청주기공 '다크호스'

내야수 황진수, 김기영, 이영준 등이 배치된 타선이 위력적이다. 다만 타선에 비해 마운드가 약한 게 흠이다.

창단 13년째를 맞이한 청주기공은 매년 '깜짝 성적'을 내는 고교 야구계의 '다크호스'다. 이선용, 이강현, 김범진 등 안정된 투수진을 바탕으로 최소 4강 진입을 자신하고 있다.

강원대표인 춘천고와 원주고는 다른 팀에 비해 전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단 8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춘천고는 강원도 고교야구의 명문팀으로 꼽히지만, 17명에 불과한 얇은 선수층이 약점이다. 주장 전한율을 중심으로 김여명, 최현웅 등 3학년이 포진한 마운드의 노련미에 승부를 걸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위성미 "자신감 회복"

### 맥도널드챔피언십 선전... '거짓 부상' 오해 벗어

최근 세계 골프계 논란의 중심이 됐던 위성미(18·나이키골프)가 8일 맥도널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1오버파를 치며 비교적 선전했다.

위성미는 이날 경기에서 버디 4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47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위성미는 "샷이 잘 맞았고 자신감을 얻었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며 "내일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드라이버를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위성미는 "오늘은 코스 매니지먼트에 신경을 쓰느라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드라이버를 쓸 생각"이라고 답했고 위성미의 스윙 코치인 데이비드 레드베터는 "드라이버는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3번 우드를 쓰는 편이 현재 80% 정도의 스윙을 하는 위성미에게 맞다"고 설명했다.

위성미는 이날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내면서 결국 부상은 광계가 아니었다"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만도 했지만 드라이버를 잡지 않은데 경기 도중 손목 마사지사의 도움까지 받는 등 오해를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